

<미래전략 컨퍼런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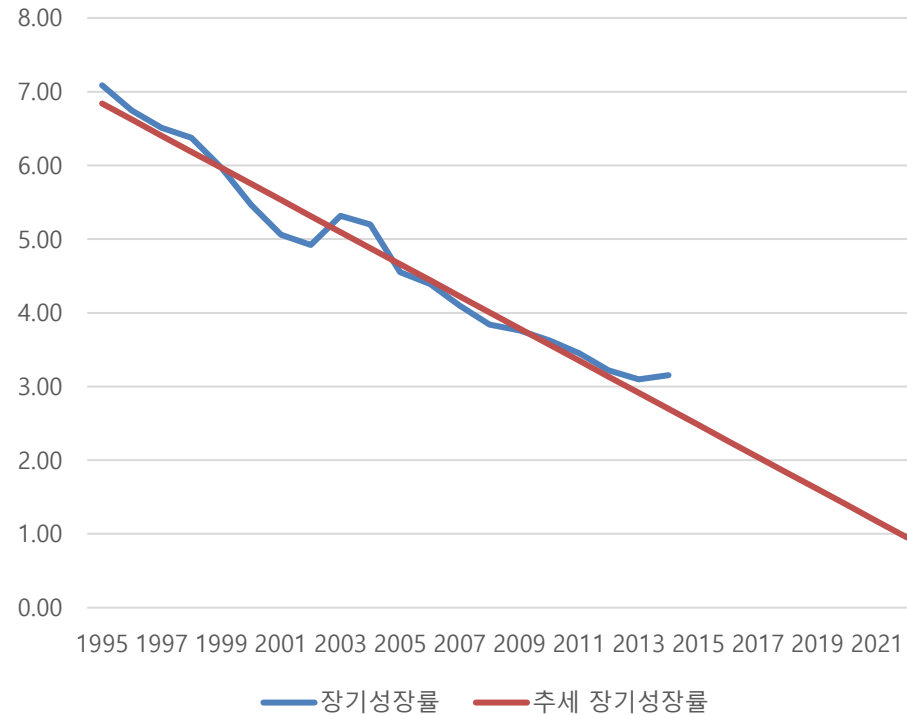
5년 1% 하락의 법칙: 원인과 해법

김 세 직

한국경제의 놀라운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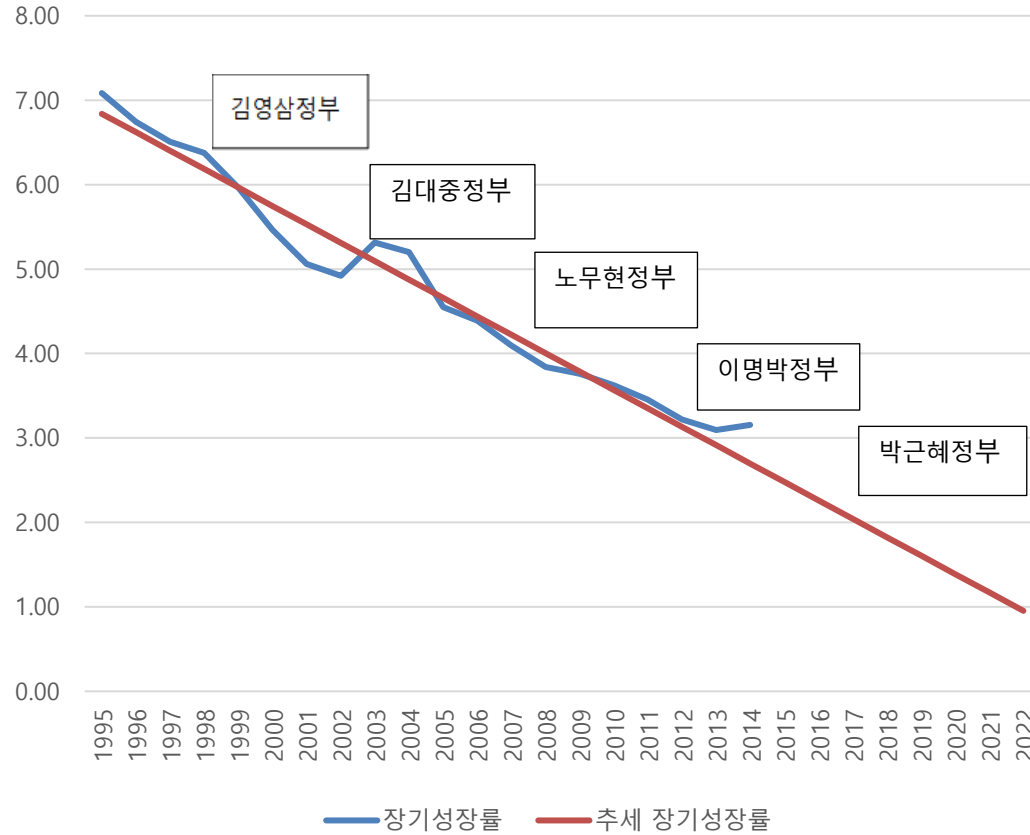
?

김세직 (2016) 5년 1% 하락의 법칙



한국 경제의 성장능력을 나타내주는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초 이후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또박또박 규칙적으로 하락

정치를 이기는 경제법칙



-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매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
(김영삼 정부: 6%대,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로 → 박근혜 정부 때 2%대, 현 정부 1%대로 추정)

'이생망'

- 5년 1%하락의 법칙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
- 예) 최근 '이생망', '헬조선'이라는 말이 등장: 취업 절벽과 청년실업에 부딪친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반영 (유토피아 아닌 디스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상상한 섬나라 유토피아

'이생망'의 원인

- 이생망 현상의 원인도

5년 1%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추락 때문

(→ 법칙에 따라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 소득이 빨리 증가하는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기 때문)

→ 결국 5년 1%하락의 법칙이 우리나라를
디스토피아(유토피아의 반대)로 몰아 가고 있는 것

제로성장의 빙하기



-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
- 법칙에 따라 장기성장률이 이제 1%대를 지나 0%대를 향해 추락 중
(제로 성장의 빙하기로)

제로성장의 빙하기



- 장기성장률이 0%대인 제로성장 시대가 도래하면
 - 단기성장률(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 2년에 한번 꼴,
 - 기업들 부도 위기 직면, IMF 위기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가능성 증대
 - 청년, 장년 좋은 일자리 급격히 감소
 -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매년 소득감소, 소득 분배 더욱 악화
- 수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 “이생진망?”

한국경제의 지상과제

-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

**→ 5년 1%하락의 법칙을 깨서
제로성장 저지**

한국경제의 지상과제

-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을 깨기 위해서는
이 법칙의 이유를 먼저 알아내야

**5년 1%하락의 법칙
(성장추락)의 원인?**

성장추락의 원인

- 장기성장률이 추락하는 성장추락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아야
- 경제성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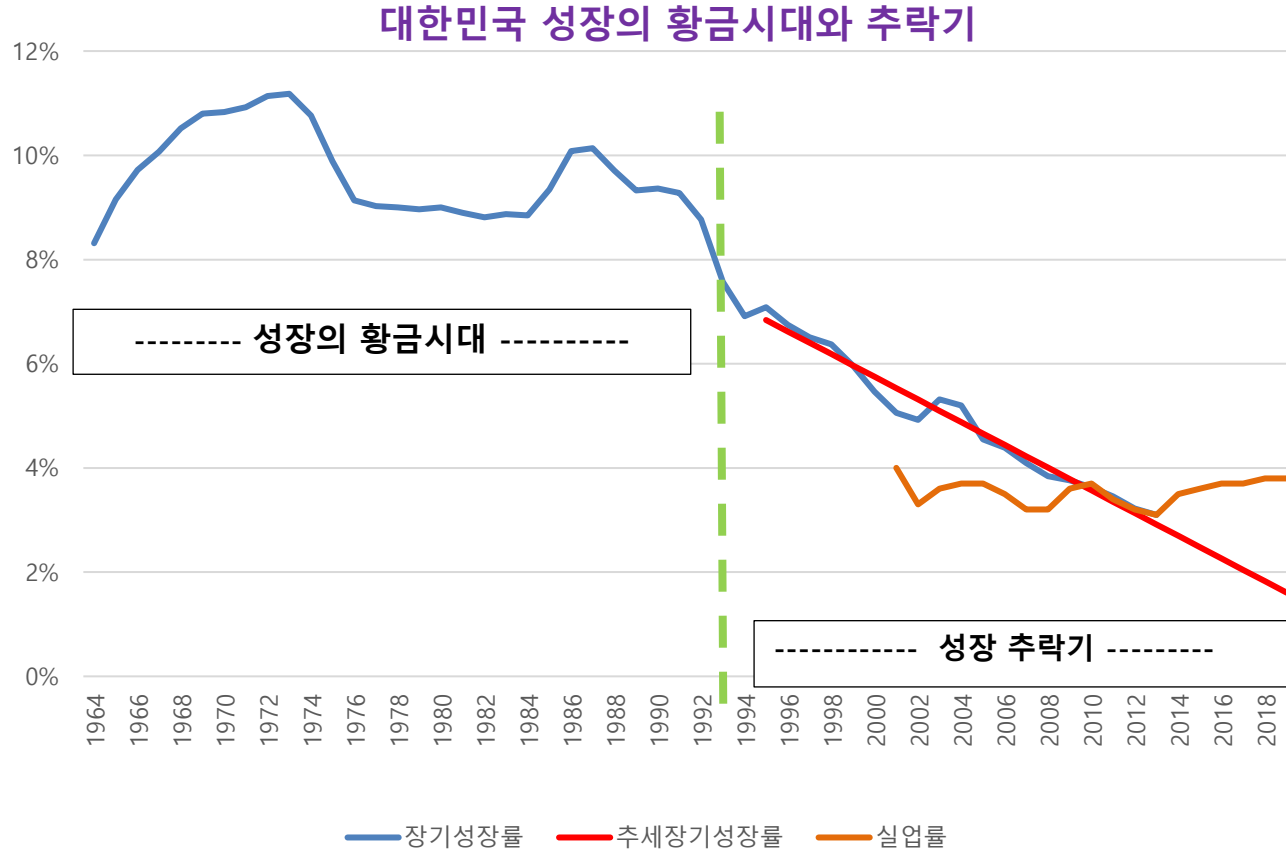
토마스 맬서스 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이 200년 넘게 고민하고 연구

- 1970년대 이후 경제학(거시경제학)을 주도해온 경제학의 최고대가 로버트 루카스 교수도 1980년대 부터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아 나섬

경제이론을 바꾼 한국고도성장

- 성장의 비법(원동력)을 찾아 나선 루카스 교수는 특히 1960년대 이후 30년간 전례 없는 8%이상의 기적적인 성장을 보인 한국에 주목
- 저는 지난 60년간 한국경제를 그래프 하나로 요약.
 - 이 그래프를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개의 30년으로 나뉘어 짐

성장의 황금시대



- 1990년 이후 30년은 성장률이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하강하는 '성장추락기' --- 그러나 1960년 이후 30년은 하락추세 없는 8% 이상의 초고속성장을 구가하던 '성장의 황금시대' (-- 루카스가 주목한 30년).

성장의 비법을 찾아나선 경제학의 최고 대가



- 루카스 교수와 동료 경제학자들은 한국 성장황금시대의 고속성장을 연구하고 이에 입각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관한 현대 경제학 이론을 1980-90년대 정립

성장의 비법은 인적자본

- 루카스교수와 현대 경제성장이론이 발견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 한마디로 인적자본!
-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나 기업가의 머릿속에 체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
 - 루카스 교수는 이러한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증명.

결국 문제는 인적자본!

-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가 고속성장을 하면 그 원인은 인적자본의 빠른 성장/축적 때문.
- 동일한 이유로, 한 나라가 성장추락을 하면 그 원인은 한마디로 인적자본 축적의 정체 때문.
 - 성장엔진인 인적자본 축적이 정체 → 5년 1%하락의 법칙

엉뚱한 인적자본 투자

- 왜 9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었을까?
- 이 시기 우리는 GDP 대비 교육비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막대한 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도 인적자본의 정체가 일어난 이유는?



엉뚱한 인적자본 투자

- 한마디로 엉뚱한 인적자본에 투자했기 때문
- 인적자본에는 '모방형 인적자본'과 '창조형 인적자본'
(김세직, 정운찬 (2007)).
 - '모방형 인적자본': 기존 지식이나 기술의 모방을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 (짜퉁 만드는 능력).
 - '창조형 인적자본': 새로운 지식/기술/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인적자본 (원조 만드는 능력).

창조의 시대

- 우리는 이 중 모방형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80년대까지 빠르게 성장
-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모방형 인적자본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
- 그 이유는 첫째 이 시기부터 선진국 특허 보호 기간인 20년 정도까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인 산업들이 늘어나고, 그 결과 특허로 보호되는 선진국 기술들을 모방하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
- 더해서 인터넷과 AI(인공지능)의 발달로 -- 남이 만든 기존의 지식이나 계산능력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모방형 인적자본의 경제적 가치가 급락

잃어버린 30년

- 이에 따라 (원조/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적자본이 됨.
- 그럼에도 30년 동안 안타깝게도 온 국민이 (짜퉁 만드는) 모방형 인적자본에 계속 투자. -- 엉뚱한 데에 잘못 투자
- 그 결과 인적자본 축적이 정체 되고 무서운 5년 1%하락의 법칙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추락.
- 지금부터라도 제로성장과 위기 저지 위해, 나라와 기업 모두 **모방이 아니라 창조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비법들

새 시대의 자본주의

- 어떻게 모방에서 창조로?

이를 위해 모방형 인적자본이 아닌 창조형 인적자본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체제 구축해야

- 즉 '모방형'이 아닌 '창조형 자본주의' 구축해야
-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는 창조형 인적자본과 그 산출물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과 인센티브가 보장된 체제
- 모방과 창조(2021):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 구축 위한
다양한 구체적 제도들 제안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 구축위한 구체적 제도

1.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아이디어 공적 구매제도, 아이디어 절도 방지법...)
2.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조세-재정 인센티브 제도
(창조형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창조형 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 창조형 제품(부품)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3.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제도 (창조형 수업, 서울대 등 창조형 대학입시,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 이 시대 최고로 가치있는 자산은 기계(자본)도 노동도 아니고 창의적 아이디어!
-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의 가치는 막대
 - 언제 수백 조원, 수천 조원이 될 지도 모름
- 예)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투자하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아이디어는 불과 십여년전에 나온 아이디어
-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이미 천조 원을 훌쩍 넘어섬(우리나라 GDP의 절반도 넘는 금액)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 그럼에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징: '컬럼버스의 달걀'
--내가 백만불짜리 아이디어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 도둑맞을 수



- 현재의 특허법/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아이디어 원작자가 전혀 인증(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다!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호 위해,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해야
-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판명된

- 모든 종류의(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대해
- 정부가 전산으로 등록해주고
- 그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어
인증하는 제도”

드라이브 스루

예)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아이디어:
드라이브 스루를 코로나 검사에 적용한 작지만 새롭고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

드라이브 스루

- 언론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의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님이 이를 처음 제시했다고 함
- 아이디어 등록제는 이런 경우 이 아이디어를 원작자의 이름을 붙여 '김진용 드라이브 스루'로 등록해 주자는 것

특허 밖 아이디어

-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현재 특허화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 특히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 보호
- 아이디어의 종류: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
- 현재의 특허 제도하에서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움. '어떻게' 만들지(기술적 아이디어)가 같이 있어야만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 그런데 무엇을 만들지가 생각하기 어렵지, 일단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군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허다

스미스의 핀 공장

-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통해 '어떻게' 뿐만 아니라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도 보호해 주자는 것
-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면 결국 '아이디어 생산의 분업'을 가능하게.
- 즉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에 관한 아이디어의 분업을 가능하게
 - 그 결과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강조한 '분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비교우위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에 특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비교우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 이렇게 분업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아이디어 생산성 상승 효과가 일어남

(예: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무엇, 문과)

스티브 워즈니악(어떻게, 이과)의 분업)

-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 아이디어 생산의 생산성을 급속히 증가

문송합니다? 문과적 발명

- 문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대부분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에 관한 아이디어 → 현재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음
(대신 법률, 공무원 등)
- '문과적 아이디어' 중 중요한 하나는 '금융에 관한 아이디어'
- 금융부문에서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의 가치는 몇 조, 아니 수천조가 될 수
예) 가상화폐: 시장가치 총액은 3조 달러 돌파
- 아이디어 등록제는 문과 인재들도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에 참여 하도록 유도

아이디어 공적 구매제도

- 아이디어 등록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등록된 아이디어들을 정부가 R&D 예산을 이용하여 직접 구매(금전적 보상)하는 '아이디어 공적 구매제도'를 같이 도입해야
-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천만원씩에만 구입해도
→ 수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내기 위해 도전
- 현재 R&D 예산은 무려 24조.
이 중 4%인 1조원만 사용해서 원작자에게 아이디어 하나 당 천만원씩만 지불해도
→ 매 년 십 만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라에서 창출될 수

아이디어 시장

- 더 나아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구매한 아이디어들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 예를 들어,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매'를 이용해 판매할 수
- 이 때, 정부는 최초 구매비용만(천 만원) 회수하고, 그 초과 수익은(예, 백 억원) 아이디어의 원작자인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도입

조세-재정 인센티브 정책



창조형 인적자본 인센티브

-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강력한 조세-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형 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 전국민 아이디어등록제에 아이디어를 등록한 근로자,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
 - 이들에게 근로소득세 면제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창조형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 창조형 인재가 창업한 기업/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 아이디어 등록한 기업가
 - 이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창조형 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

창조형 제품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 창조형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부품
 - 이들에게 부가가치세 감면해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창조형 제품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도입

창의력 교육제도



창조형 수업

-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제도나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능력을 키우는 제도 도입도 중요.
- 이를 위해 창조형 수업을 학생 교육과 근로자 교육에 도입.
- 창조형 수업이란?
 -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
- 이는 전통적인 수업방식인 모방형 수업(즉 기본적으로 남이 만든 것을 외우는 것 말고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는 수업)과 정반대의 수업.

열린 문제

- 창조형 수업은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과제나 문제로 던져주어
창의력을 키워주는 방식을 택함

- 특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열린 문제를 이용

예를 들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빛의 제국'을 제시하고

'이 그림에 나오는 낮과 밤의 공존 같은 비현실적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시오' 하고 질문을 던짐



불나라의 얼음 화폐

- 혹은

“1년 내내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비트코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화폐를 상상하여 제시하시오.
또 이를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시오.”

(비트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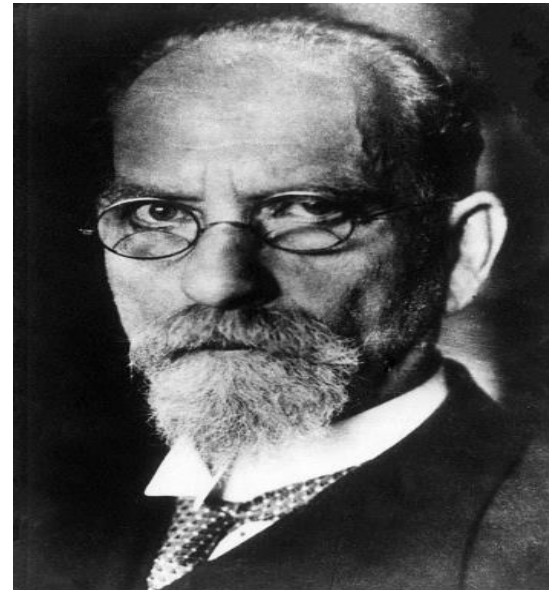
비현실적인 그러나 논리적인

- 창조형 수업은 이런 열린 문제를 통해
 - (1) 아직까지 현실에 없던(비현실적인) '무엇'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 (2)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어떻게'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키움
- 이런 열린문제로 교육하는 이유:
새로운 아이디어/새로운 발명(품)은
 - (1)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생각해낸 것
 - (2)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

후설의 상호주관성

- 창조형 수업은 열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
- 창의성 평가는
다수의 평가자를 이용하는 상호주관적 평가 방법,
& 전문가의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평가

→ 이 경우 창의성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창조형 대학입시

입시 개혁

- 창조형 수업 도입만으로는 부족할 수
- 대학입시가 같이 바뀌어야 창조형 수업이 일선 초중고 학교에서 뿌리 내릴 수
- 따라서 입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부터 나서서
 - 창의력을 기준으로 학생선발을 하는 '창조형 대학입시' 도입
 - 다수 평가자에 의한 상호주관적 평가를 통해 창의력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시간을 저축하는 방법

- 예를 들어 서울대 입시에서 다음과 같은 열린 문제를 출제 (경제 분야)
“과연 시간도 저축할 수 있을까? 시간을 저축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시오.”
→ 창의력 기준으로 평가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

- 창의력 교육은 학생 뿐만 아니라,
 - 학교에서 모방형 인적자본만 축적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2700만 취업자들에게도 절실함
- 이분들을 창의적 근로자로 재탄생시키는 '창의 인재 재탄생 프로그램' 도입해야.
- 이 프로그램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성하되
 - 프로그램의 전반기는 창조형 수업을 통해 창조형 인재로 탈바꿈하는 기간.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

- 후반기는 창조형 수업에서 익힌 창의력을 갖고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도전.

예) 금융분야:

새로운 금융상품 만들어보는 아이디어에 도전,
금융과 관련된 게임 아이디어에 도전,
새로운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도전

단기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을 3개월 혹은 6개월짜리 파트타임 단기 프로그램으로 도입
 -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과 창의성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 이러한 단기프로그램도 매우 효과 있음, 창의성은 짧은 시간 안에도 증진시킬 수.
 - 필자가 가르쳐온 창조형 수업들에서 서베이를 해보면, 90% 이상의 학생이 수업들은 세 달여 만에 창의성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

노동시장 개혁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형 인재로 거듭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상품화하는데 성공한다면
 - 나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좋은 일자리'의 공급이 놀라운 속도로 늘 수
- 이런 까닭에 이 프로그램은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맺음말

신세계의 가능성

-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이라도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선택한다면
 - 일부 국민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창의 인재화되고,
 - 국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여 성공할 확률이 미국보다 높아지게 될 수
- 국민들 중에 수많은 크고 작은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들(창의적 인재)이 끊임없이 나오고,
이들의 생산적 아이디어가 제품화되면서
전 산업에 걸쳐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

신세계의 가능성

- 전산업에 걸쳐서 우리 나라가 창출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수가 세계 기술진보를 주도해왔던 미국보다도 오히려 빠르게 증가
- 그 결과 장기성장률이 GDP 1위국인 미국을 앞지르고 고속성장을 다시 회복하여 지속할 수
(일인당 소득도 미국을 앞지를 날이 올 수)

우리의 선택은?

- 결국, 앞으로 고속성장을 회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일자리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지
- 아니면 제로 성장과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곤경에 빠진 디스토피아에 처할지는
- 우리가 창조형 자본주의 국가를 만드는 개혁·혁명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에 달려

→ 과연 대한민국의 선택은 ???